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4월 22일(목) 총 3매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담당자	• 주차시설팀장 강경수 ☎440-3921 • 담당자 고두환 ☎440-3927		
사 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원도심 주차스트레스 없애기 본격 시동

- 5개년 주차종합계획에 이어 2021년 실행계획 마련해 군·구와 적극 추진 -
- 올해 1,059억 투입해 주차장 확보, 불법 주정차 해소 위한 16개 과제 추진 -
- 우수 군·구에 인센티브, 군·구 종합평가 반영 등으로 실효성 제고 -

인천시가 원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3월 주차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한데 이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2021년도 주차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4월 22일 안영규 행정부시장과 이정두 교통국장, 10개 군·구 부단체장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T/F 2차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주차종합 실행계획 추진,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 ▲주차 관련 최근 이슈사항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1년 주차종합 실행계획에는 주차장 확보,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 불법 주정차 해소 등 4개 분야, 16개 세부 과제가 담기며, 이를 위해 올해 총 1,0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저비용 주차공간 조성, 유희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등이 추진되며, 선진 주차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주차공유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1년 주차종합 실행계획은 시와 군·구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장·단기적 주차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며, 매분기 회의를 개최해 실적 점검, 현안 및 이슈사항 논의 등을 거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 군·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군·구의 경우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공개,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주차질서 확립 내용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체장 회의를 분기마다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2021년 주차종합 실행계획 주요 내용 >

